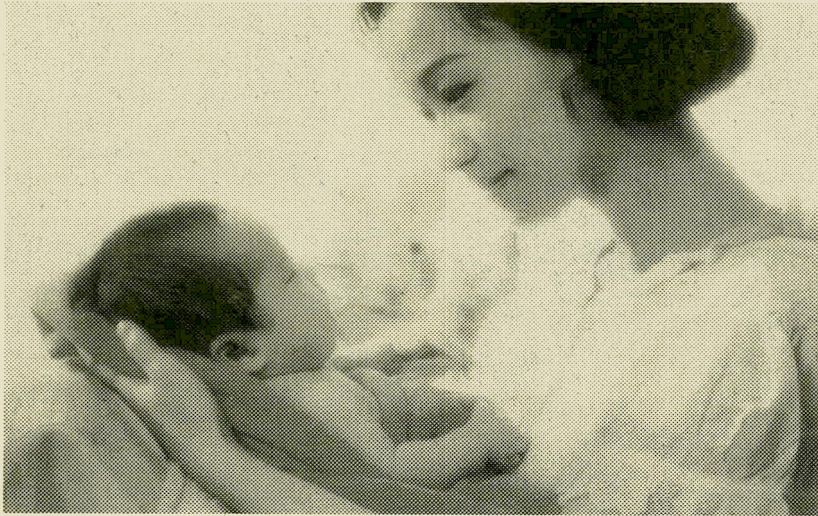




엄마 젖을 먹이면 아기가 황달 설사에 걸릴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모유수유를 확산시키자는 목소리가 높다.

모유 먹이기 10명중 3.7명 불과

간호협회 토론회 「선진국 8명」에 크게 못미쳐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창립70주년기념으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각 병원의 모자同室制 실시, 전문간호사 임명 등 모유수유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은 37.3%.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입원시킴으로써 모유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병원의 제도, 모유수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모유수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바른 대처방안들이다.

△아이가 황달에 걸리면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신생아 황달은 아이의 간장이 미숙하여 담즙속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몸속에 쌓여 생기는 생리적인 것으로 생후 2~4일에 시작되어 1~2주이내면 거의 없어진다.

아주 드문 경우 모유가 황달을 촉진할 수 있으나 황달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모유수유를 중지하고 우유를

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제왕절개술로 피를 많이 흘리고 출산한 뒤 항생제를 먹는데 이런 때에는 모유수유를 해서는 안 된다—수술 후 항생제사용으로 젖분비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1주일 정도면 투약이 끝나며 투여되는 대부분의 약의 종류나 용량은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아이가 미숙아일 경우 엄마젖을 먹이면 안 된다—빠는 힘이 전혀 없는 미숙아는

임신시 유방의 지방축적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젖을 먹이지 않았을 경우 유방암발생빈도가 높다.

△모유를 먹이면 설사를 하고 변이 묽어지므로 아이에게 좋지 않다—모유를 먹는 아기는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변이 묽고 횟수도 3~6회, 혹은 그 이상이며 변색깔은, 난황색이지만 녹색이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른을 기준으로 배변횟수가 많다고 설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병원 신생아 분리...젖줄 기회 차단 문제

“몸매 나빠진다” 등 잘못된 인식도 부채질

병원에서 돌보므로 자칫 엄마젖을 더 못먹이게 되지만 미숙아일수록 모유가 더 필요하므로 소독된 무균용기에 엄마젖을 짜서 담아 먹이도록 한다. 그 후 빠는 힘이 생길 때 직접 먹이면 된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몸매가 나빠진다—양쪽 젖을 번갈아가며 고루 먹이고 잘 맞는 보정용 속옷을 착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유방이 늘어나는 것은

며 아기체중이 일정하게 증가하면 계속 모유를 먹여도 된다.

△직장에 다시 나가야 하는데 아예 일찍부터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규칙적으로 유방을 비워주기만 한다면 모유분비는 지속되므로 출산후가동안 모유를 먹이고 그후에는 낮에는 우유를, 밤에는 모유를 먹이는 혼합영양을 하는 편이 좋다. (全孝暎)